

변동성 심한 암호화폐

코인 시장 참여자 간 힘 겨루기 탓 ‘롤리코스터’ 지속될 듯

〈투자자·기업·국가〉

최화준
아주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미·중 등 규제 국가들이 주도권
유동성 축소 조짐에 투자자 힘 빠져
결제 수단으로 인정 기업들 증가
힘의 균형 이뤄져야 변동폭 줄어

비트코인 하루 시세 등락 폭이 20%에 육박하는 등 암호화폐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루 새 5000달러 이상 오르내림을 반복하자 시장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급락, 급등을 거듭하면서 암호화폐를 17세기 튜립 버블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튜립 가격은 1637년 주저앉은 뒤 반등하지 못했지만, 암호화폐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투기 심리와 가격 거품이라는 측면에선 일치하는 모습도 있지만, 비트코인 등 일부 암호화폐는 조금씩 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무제한에 가까운 가격 변동은 시장을 지치게 한다.

암호화폐로 급성장 스타트업 속출
대체 이 같은 변동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2018년에도 그랬지만 최근의 암호화폐 변동성은 시장 참여자 간 이해관계에서 시작됐다. 암호화폐 시장엔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기관·개인 ▶투자자가 있고,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려는 ▶기업이 있다. 그리고 기업과 투자자가 몰려 있는 물리적 공간인 ▶국가가 있다.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힘의 균형이 시장 참여자 어느 한쪽으로 쏠릴 때 암호화폐 가격은 급등하거나 급락한다. 단순히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늘었고,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투자자의 힘이 세지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힘의 균형이 투자자 쪽으로 기울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암호화폐의 가격 급락은 힘의 균형이 상대적으로 ‘국가’ 쪽에 쏠린 영향이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주요 국가가 자국의 통화와 금융시장을 지키기 위해 암호화폐를 규제·금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리적 힘으로 찍어 누른 것인데, 이들 나라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외화 유출과 돈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최근 중국인들이 암호화폐 환지기를 통한 불법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같은 사건이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범죄다.

통제하지 못하는 돈의 흐름이 늘어나는 것을 반길 나라는 없다. 최근 미국이 1만 달러(약 111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나, 중국·인도가 암호화폐 유통을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시행을 예고하고, 내년부터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나라의 이 같은 분위기는 암호화폐 흐름에 대한 추적과 통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둘째는 상대적으로 투자자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회의에선 처음으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준은 “경제가 빠른 진전을 보인다면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자산매입 속도 조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언젠가’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이후 암호화폐 투자자의 실타이었던 시중 유동성이 차츰 줄어들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렇다고 힘의 균형이 ‘국가’에 쏠린 채 암호화폐 시장이 이대로 문을 닫을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시장이지만, 암호화폐 특성상 또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면 그만이다. 경제 규모가 크고 금융시장이 안정된 나라는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적지 않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업체인 KPMG는 주기적으로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100개를 선정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데 최근 몇 년간 이 보고서에는 에스토니아, 바르바도스 군도, 몰타공화국 등 낯선 국가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모두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 자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암호화폐에 포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블

암호화폐 가격 변동 현황

가격 하락 암호화폐 수
단위:개



주요 암호화폐 가격 변동률
단위:%(25일 오후 5시 30분, 원화시장 기준)



롤리코스트 탄 비트코인



자료:업비트·코인데스크



록체인 허브로의 도약을 꿈꾼다.

기업의 이해관계도 중요하다. 기업들은 대체로 암호화폐에 긍정적이다.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미의 주요 투자기관들이 암호화폐,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자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다. 시범적이긴 하지만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곳도 나온다. 미국의 페이팔이나 국내 PG사 다날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내재가치가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다. 암호화폐를 활용해 급성장 중인 스타트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나스닥에 상장, 100조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티켓몬스터 창업자가 설립한 회사로 유명한 테라가 결제시장에서 서비스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플랫폼을 거느린 거대 인터넷 기업의 행보도 주목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암호화폐

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동시에 경쟁자를 쉽게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카카오톡 예로 들어보자. 카카오톡은 2018년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엑스를 일본에 설립하고,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발행했다. 그리고 2019년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급 서비스 ‘클립’을 추가했다.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언제든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 지급,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가치 정립에 상당한 시간 필요

카카오톡 클레이를 통해 카카오톡 사용자들 모두 거느린 독립적인 경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고, 나아가 카카오톡페이와 카카오펀크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리고 클레이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유통된다면 카카오톡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다. 네이버도 같은 꿈을 꾸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시장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국내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해외 자회사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동안 여러 기업들이 암호화폐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며 가격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로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암호화폐 가격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시장 참여자 간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춰지면 주식시장처럼 변동 폭이 줄면서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될 텐데, 문제는 그게 언제가 될 지는 아직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점이다. 암호화폐의 지위와 가치의 정립에는 상당한 시간과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실체없는 알트코인 많지만
사용처 늘어난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더 커진 건 알트코인 영향이 작지 않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를 통칭하는데, 국내에선 ‘잡(雜)코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의 시바견을 마스코트로 장난삼아 만들었다는 도지코인이 대표적인 알트코인이다. 얼마 전 국내에선 도지코인을 패러디해 진돗개를 모델로 한 진도지코인(JINDOGE COIN)이 나오기도 했다.

도지코인이나 진도지코인은 실물 경제에 아무런 효용가치 없지만 하루에도 수십, 수백% 등락한다. ‘투기’ 수요가 가담한 때문이다. 진도지코인은 13일 개발자가 갖고 있던 코인을 대거 매도하면서 순식간에 97% 폭락하기도 했다.

그런데 모든 알트코인이 도지코인·진도지코인처럼 ‘실체’가 없는 건 아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알트코인도 적지 않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앱서비스의 현황을 보여주는 스테이트 오브 더 디앱스(State of the DApps)에 따르면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기반의 알트코인 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인기 서비스의 대부분이 디파이(DeFi·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 서비스를 통칭)에 집중돼 있지만, 여러 형태의 사이버 머니가 이미 통용되었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 게임 영역에서 알트코인의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과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용했던 포인트나 온라인의 사이버 머니가 미래에는 알트코인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을 잡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시각이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락이 서서히 진정되면, 실물 경제에서 효용가치를 늘려가는 안정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 알트코인의 변동폭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화준 연세대에서 영어영문학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HEC파리에 경영학 석사, 연세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시의 핀테크랩 운영사인 ‘팀워’ 이사로 재직하며 핀테크·블록체인 엑셀러레이팅과 컨설팅을 담당하기도 했다.